

‘反 유튜브연합’ 토종 OTT 뭉쳤다… 역차별 해소에 주력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한국 OTT포럼, 창립기념 세미나

내년 시장규모 1410억 달러 전망
“망 이용료·저작권 침해 등 발생
발전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해야”



성동규 한국 OTT 포럼 초대 회장이 1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창립기념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나인 기자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국내 공세가 속도를 더하고 있는 가운데 토종 OTT들이 뭉쳤다. OTT 산업 연구뿐 아니라 OTT 도입 후 전개되는 시장 상황 변화,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을 포괄하는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연구 모임을 통해 국내 OTT 산업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움직임이다.

16일 한국 OTT 포럼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창립 기념 세미나를 열고, OTT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국 OTT 포럼은 핵심 미디어로 부상한 OTT에 대한 국내 첫 전문 연구단체다. OTT를 둘러싼 방송 시장, 이용자 보호, 국내외 환경 분석과 함께 정책 등을 포괄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은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맡았다.

성동규 회장은 “속보성, 오락성을 무기로 신문을 압도하며 대표적인 매체로 자리매김한 텔레비전이 시청자들의 공간·시간을 제약하는 한계를 비집고 OTT가 그 자리로 영역을 넓혀갔다”며 “OTT 산업 성장 측면에서 시장 생태계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글로벌 OTT 서비스 시장규모는 2017년 기준, 약 570억 달러(약 67조원)다. 2020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해 약 1410억 달러(약 16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OTT 사업자들이 빠른 시장 재편으로 해외 공략을 가속화하는 반면 국내, OTT 서비스는 제공 채널 부족, 비싼 가격, 서비스 안정성 부족 등의 이유로 더딘 성장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해 넷플릭스의 유료 이용자는 184만명, 유료 결제 금액은 241억원으로 추

정된다. 지난해와 같은 기간 넷플릭스의 유료 이용자는 63만명에 불과했다. 작년 동월 대비 192% 성장한 셈이다.

국내 사업자는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각각의 창구를 통해 OTT 사업에 나서고 있지만 관련 규제가 미비하고 미디어 시장이 케이블TV, IPTV 등으로 혼재돼 이용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실정이다.

이에 OTT포럼은 국내 사업자들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되겠다는 비전이다.

이 자리에서는 OTT가 발전하기 위한 정책적 환경 조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특히 국내 유료방송 시장은 통신사업자의 영향력이 커 인터넷 모바일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OTT 서비스를 둘러싼 불공정 거래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무엇보다 글로벌 사업자인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의 경우

망 이용료와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해 국내 규제가 어려워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OTT 서비스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최세경 연구위원은 “현재의 방송법 규제시스템은 사후에 공정경쟁 여건을 보장할 장치가 부족해 관련 규제조치를 시급히 확보해야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개념의 도입 및 경쟁제한성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케이블TV 가입자 등 이용자보호에 관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은 “생사를 넘나드는 무한 경쟁에서 동향을 가능하고 지형을 내다보는 지도와 망원경이 필요하다”며 “방통위 역시 제도 개선과 국내 사업자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정책 수립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나인 기자 silkni@metroseoul.co.kr

카카오벤처스 AI 데이터 플랫폼 셀렉트스타에 투자

카카오벤처스가 클라우드소싱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셀렉트스타에 4억원을 투자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투자로 셀렉트스타는 시드 라운드 투자를 마무리했다. 셀렉트스타는 카이스트 출신 공동창업자로 구성된 작년 12월 카이스트의 스타트업 경진대회 E5에서 최종 우승한 팀이다.

셀렉트스타는 기업이 의뢰한 인공지능 데이터를 클라우드소싱 방식으로 수집 및 가공한다. 자체 모바일 앱 ‘캐시미션’에서 사용자는 데이터 생산에 필요한 간단한 미션을 수행하고, 환전 가



카카오벤처스가 클라우드소싱 기반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셀렉트스타에 4억원을 투자했다. /카카오벤처스

능한 포인트를 보상 받는다. 특히 셀렉트스타는 철저한 데이터 검수 과정을 중시한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중기벤처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신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서울중기청)은 비즈니스지원단 내에 ‘일본 수출규제 애로신고센터’를 15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규제로 반도체·디스플레이 관련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서울중기청에 설치·운영하는 신고센터의 주요 목적은 관내 중소기업의 피해현황과 애로·건의사항을 발굴하고 서울지역 수출지원협의회 기관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마련함으로써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중기청은 또 이번 추경에 신청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피해 중소기업들에게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매출감소 등 피해가 구체화된 기업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서울중기청은 해당 지원자금의 신청요건에 ‘일본수출규제 피해기업’을 추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해 피해 중소기업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링크웨어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3000 프로’

링크웨어는 최적의 영상 녹화화질을 지원하는 커넥티드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3000 프로(PRO·사진)’를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전후방 2채널 FHD 블랙박스로 핵심 기능인 영상 처리, 저장, 주차녹화 지원은 물론 IPS 패널을 새롭게 적용해 차량 내 어느 각도에서도 선명한 실시간 영상확인이 가능하다.

‘아이나비 QXD3000 프로’는 FHD의 선명한 영상화질과 더불어 ‘트루 HDR’ 기능을 적용했다. 최신 임바렐라



H22 쿼드코어 CPU와 소니 스타비스 CMOS IMX327 센서, 링크웨어의 영상조정 기술이 더해져 만들어진 기 능이다. 터널, 주차장 진출 입 등 역광을 포함한 다양한 조도 변화에서 빛 번짐을 최소화한 선명한 영상 구현이 가능하다. 야간화질도 자사 ‘수퍼나이트비전’ 대비 4배 이상 밝기와 선명도를 구현하는 ‘울트라나이트비전’을 적용해 어두운 야간 환경에서도 깨끗한 주행, 주차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 /김승호 기자

네이버와 사랑에 빠진 중기부장관

“데이터는 미래 권력… 네이버와 상생 추진”

박영선 중기부장관 취임 100일

한때 ‘골목상권 침범’ 주범 인식
現 ‘상생과 공존’ 기업 자리매김

16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대형 포털인 네이버와 사랑에 빠졌다.

중기부 2대 수장으로 취임한 뒤 줄곧 ‘연결자’ 역할을 강조하면서 ‘잘 하는 기업’을 발굴해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적극 돕도록 하면서다.

한때 골목상권을 침범하는 주범으로 인식됐던 네이버가 박 장관으로 인해 상생의 아이콘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는 것이다.

박 장관이 최근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혁명 이슈 사이에서도 네이버가 등장한다.

100일 전인 4월8일 취임한 박 장관은 한 달여 뒤인 지난 5월13일 네이버와 소상공인연합회를 연결해 주기 위해 부산으로 달려갔다.

네이버는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2013년부터 파트너스퀘어를 운영하면서 온라인 콘텐츠 교육, 네이버 쇼핑 플랫폼을 통한 입점 지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당시 중기부-네이버-소상공인연합회간 협약 체결을 통해 네이버는 박 장관의 정책 철학인 ‘상생과 공존’을 대표하는 자발적 상생기업, 즉 ‘자상한 기업’의 첫 사례가 됐다. 네이버가 첫 테이프를 끊은 자상한 기업은 이후 포스코, 신한금융그룹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중소기업청에서 장관급 부처로 승격된 중기부는 2017년 출범 후 대형 포털과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업체들을 놓고 단단히 버리고 있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포털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실제로 중기부는 출범 이듬해인 2018년 부처 업무보고 당시 앞서 진행한 실태조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포털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당한 사례를 확인했다며 합리적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털의 키워드 검색광고나 입찰식 광고(베딩식 광고) 등이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고 있다는 내용이 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온라인 포털의 불공정행위를 막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중기부는 이후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네이버는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사들의 골목상권 침범 이슈가 한참 불거지던 2010년대 초반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부터 가해 기업의 하나로 지목받았다. 이후 네이버는 소상공인 등과 상생협력하겠다고 500억원을 출연해 재단법인인 중소기업인희망재단을 2014년 초 만들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새로운 유통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온라인 마케팅 등을 과감히 지원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역시 네이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산자중기위에 제출한 업무보고에선 중기부가 연결자로서 ‘자상한 기업’을 발굴→연결→홍보해 자발적 상생협력 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지난 8일 출입기자들과 함께한 오찬 자리에서 ‘데이터 주권’을 강조하면서 네이버를 다시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데이터 주권론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면서 “우리의 모든 정보를 구글이나 아마존 등에 저장해 놓고 있는데 AI도 사람과 같아 오랜시간(데이터를) 축적하고 학습하면 점점 똑똑해진다. 언제까지(해외에 빅데이터를 넘겨주면서) 이런 식으로 갈 수는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데이터는 어디 한 곳에 종속되면 안 된다. 데이터는 미래 권력”이라며 “다행히 우리는 네이버를 갖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투자하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클라우드 기반의 AI 제조혁신 서비스를 위해 국가가 나서 데이터 센터 플랫폼을 구축, 이들 데이터를 중소벤처기업이 마음껏 활용해 제조혁신을 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승호 기자 bada@